

전북 조상굿 사설의 구성과 특징

임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음악학 전공
nina214@hanmail.net

- I. 머리말
 - II. 전북 조상굿의 연행 양상
 - III. 전북 조상굿의 내용 구성
 - IV. 전북 이외 지역 조상굿의 내용 구성
 - V. 전북과 타지역과의 조상굿 사설 내용 비교
 - VI. 맺음말
-

I. 머리말

조상굿은 집안에 안녕을 위해 가신(家神) 중 하나인 조상신을 대상으로 행하는 굿이다.¹ 한국무속에서 조상신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가내(家內)를 위한 집굿²과 망자가 사망한 기간이 상당히 지났을 때 하는 목은시꺼굿³에서 조상굿을 제외하고 거행한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현장 조사한 무가(巫歌) 자료를 참고하면 북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조상굿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조상굿은 한국무속의식에서 중요하게 연행된 무속의례이므로 조상굿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 중 제주도 서사무가인 조상신본풀이 관련 논문 편수가 가장 많았다.⁴ 이것은 무가 연구에서 일반무가⁵보다 서사무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6110).

- 1 마을굿에서도 조상을 숭배하는 의례를 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집안을 위해 연행하는 조상굿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마을굿에서의 조상 의식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했다. 그 이유는 집안에 안녕을 비는 굿과 마을 공동체의 평안을 기원하는 굿은 그 성격과 양상 등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2 家內를 위해 행하는 굿은 재수굿·안택굿·도신굿·축원굿 등 여러 명칭으로 일컫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여 ‘집굿’이라 했다.
- 3 목은시꺼굿은 망자로 인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행하며, 전북에서 일컫는 용어이다. 이 굿은 전반부에는 ‘산자 발원’ 후반부에는 ‘망자 천도’를 위한 절차들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굿은 서울의 안안뽕굿(목은진오기굿)·동해안의 오구굿·전남의 셋김굿 등이 있다. 목은시꺼굿은 굿의 목적이나 절차 구성 등을 통해 셋김굿이자, 넓은 의미에서 재수굿으로도 볼 수 있다.
- 4 강소진, 「십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제36호(2010), 147~184쪽;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편), 『제주도 본풀이의 세계』(서울: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김현선,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 『한국무속학』 제11집(2006), 201~235쪽;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과주: 보고서, 2006); 김혜정,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양씨아미본풀이>의 유형별 특징과 의미」, 『어문논집』 제88집(2020), 49~74쪽; 류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연구 편수는 적으나 서울굿 조상거리⁶와 동해안굿을 대상으로 진행된 논문이 발표되었다.⁷ 서울굿 조상거리 연구에서는 조상거리의 의미, 조상의 개념·성격·위치 등에 대해 논해졌고, 동해안굿에서의 조상굿 연구는 무당이 그들의 조상을 위해 행한 조상굿의 구성과 특징 등을 살펴본 것과 동해안별신굿의 어정보장단과 무가를 음악적으로 분석한 무악(巫樂)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한국 민간신앙에서의 조상숭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⁸ 이들 연구에서는

진옥,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8); 류진옥, 「조상신본풀이 전승 양상: <부대각본>과 <양이목사본>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38집(2019), 113~149쪽; 이경화, 「<양씨아미본풀이>의 장르 교섭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무속학』 제36집(2018), 311~329쪽; 이현정, 「<고전적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제52집(2019), 93~137쪽; 정진희,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제주도연구』 제32호(2009), 205~228쪽;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서울: 민속원, 199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서울: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서울: 집문당, 2005).

- 5 본 글에서는 서사무가가 아닌 무가를 일반무가라 하겠다.
- 6 권선경, 「조상숭배의 사적 영역과 여성: 서울굿 조상거리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65집(2019), 101~129쪽; 염원희, 「무속의례에 있어 '신과의 소통'이 갖는 의미 연구: 서울굿 <조상거리>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49집(2012), 135~161쪽; 이용범, 「한국무속에 있어서 조상의 위치」, 『민족과 문화』 제10권(2001), 193~215쪽은 이용범, 「한국무속에 있어서 조상의 위치」, 『샤머니즘연구』 제4권(2002), 199~223쪽에 재수록.
- 7 윤동환, 「동해안 김씨조상굿의 구성과 특징」, 『실천민속학연구』 제35호(2020), 727~755쪽; 조종훈, 「동해안별신굿 부산·경남지역 무악 연구: 조상굿 중 어정보장단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 8 이채원, 「조상신앙의 지역적 양상과 성격에 관한 시험적 고찰」, 『지방사와지방문화』 제12권 제2호(2009), 99~133쪽; 임돈희, 「한국조상의 두 얼굴: 조상덕과 조상 탓-유교와 무속의 조상의례의 비교」, 『한국민속학』 제21집(1988), 133~171쪽; 장주근, 「한국 민간신앙의 조상숭배: 유교 제례 이외의 전승 자료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제15집(1983), 63~80쪽; 장주근, 「무속의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제18집(1986), 95~107쪽;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서울: 예전사, 1986); 최길성, 「특집: 한국 조상숭배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문화인류학』 제20권(1988),

가신신앙과 마을 공동의례에서의 조상숭배 관련 의례 양상, 조상신앙의 개념 등 주로 민속학적 측면에서 조상숭배를 다루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의례나 집에서 모시는 조상 신체 등의 양상과 조상숭배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무가 내용 자체에 관한 논의가 소홀히 다루어졌다. 특히 굿에서 무당의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세습무에서는 대부분 무가(巫歌)로 의식이 진행됨에도 조상굿 무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의문이다. 그나마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서사무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으나, 일반무가로 된 다른 지역 조상굿 무가 관련 논문은 발표된 적이 없다. 이에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의 조상굿 무가 연구도 요구된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무가에 속하는 여러 지역의 조상굿의 무가 내용은 현지조사에 의한 보고서 및 무가집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의 조상굿은 대체로 내용 구성이 간단하다. 그런데 전북 조상굿은 이 지역에서만 부르는 내용이 있어 흥미롭다. 가령 전북 조상굿에서는 사람의 죽음 및 장례 과정을 상세히 노래하거나 망자가 저승 가는 길과 저승에 당도하여 마주하게 된 저승 풍경, 그리고 망자가 저승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묘사한 것 등을 노래한다.⁹ 이처럼 전북 조상굿은 타지역에 비해 무가 내용이 다양한 편이다.

지금까지 조상굿이 중요하게 연행되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조상굿 연구는 찾기 어렵고, 굿에서 무가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조상굿의 무가

153~166쪽; 최길성, 『한국인의 조상숭배와 효』(서울: 민속원, 2010); 최준식, 『한국의 풍속』민간 신앙』(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황경숙, 「동남해안지방의 전통적 조상숭배신앙 연구」, 『한국민학논총』 제32집(2002), 37~72쪽 등.

9 입석재, 「제79호 줄포무악」,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1집(문화재관리국, 1970), 189~200쪽; 김태곤, 『한국무가집 2』(서울: 집문당, 1971b), 86~98쪽; 김성식, 『전북의 무가』(전주: 전북도립국악원, 2000), 55~57쪽, 208~210쪽 자료 중 조상굿 사설 내용 참고.

사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울러 타 지역보다 사설 내용이 풍부한 전북 조상굿 무가가 주목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북 조상굿의 사설을 분석하여 조상굿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고찰하고, 전북 이외 지역과의 비교로써 전북 조상굿의 보편성과 특징 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할 대상 목록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¹⁰

표1-무가 (조상굿) 자료 목록

지역	연행자(채록 연도)	출처
전북 부안	박소녀(1966~1970)	임석재, 『출포무악』(1970)
전북 군산	장금순(1965)	김태곤, 『한국무가집 2』(1971b)
전북 군산	김옥순(1982)	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5-4』(1984)
전북 김제	미상(1988)	임영춘, 『전북 전통 민속 下』(1990)
전북 정읍	신귀녀(1996)	김성식, 『전북의 무가』(2000)
전북 군산	김봉순(2000)	김성식, 『전북의 무가』(2000)
전북 정읍	전금순(2006)	이영금, 『전북 씻김굿』(2007)
황해도	김금화(미기재)	김금화, 『김금화의 무가집』(1995)
평양	정대복(1973)	김태곤, 『한국무가집 3』(1978)
서울	김유갑(미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1998)
경기도 화성	심복순(1973)	김태곤, 『한국무가집 3』(1978)
충남 부여	이어인년(1966)	김태곤, 『한국무가집 1』(1971a)
전남 진도	채정례(1987)	국립민속박물관, 『진도무속현지조사』(1988)
경북 영일	김석출(1976)	김태곤, 『한국무가집 4』(1980)

10 보고서 및 무가집에 전북 조상굿이 수록된 연행자는 중복으로 채록된 자료를 제외하고 대략 11인이다. 이 가운데 사설 내용이 풍부한 연행자는 7인이므로 이들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표에 없는 나머지 자료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전북 조상굿은 일반무가에 속하므로 같은 일반무가로 된 황해도·평양·서울·경기도·충남·전남·동해안의 조상굿과 비교할 것이며, 서사무가로 된 제주도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II. 전북 조상굿의 연행 양상

조상굿의 사실 구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전북에서는 조상굿을 무슨 굿거리
리에 연행했고, 굿 절차 내에서도 어디에 배치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다.
조상굿은 본래 집굿에 해당하는 축원굿, 경사굿 등에서 행한다. 그런데
망자가 죽은 지 시간이 지났을 때 행하는 묵은시끔굿에서도 전반부에
집굿에서 부르는 굿거리를 배치하기 때문에 조상굿을 연행한다. 그래서
〈표2〉를 참고하면, 조상굿은 전북 시끔굿에서 산자 발원을 위해 부르는
전반부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¹

다만, 군산의 김봉순과 정읍의 신귀녀만이 망자를 천도(薦度)하기 위해
행하는 후반부에서 조상굿을 노래했다. 이 두 무녀는 바리공주를 위한
굿거리인 오구물림에 이어서 조상굿을 배치했다. 다음 장의 전북 조상굿의
사실 분석을 통해 왜 두 무녀가 망자 천도를 위한 후반부에 조상굿을
배치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1 〈표2〉의 전북 시끔굿 절차 구성은 전북 조상굿 연행자 11인 가운데 절차 구성이
비교적 충실히 조사된 연행자 중심으로 정리했다.

표2-전북 시김국 절차 구성

구성	연행자 (채록 연도)	㉠ 부안 박소녀 ·성씨·김씨 (1966~1970) ¹²	㉡ 군산 장금순 (1965)	㉢ 군산 김봉순 (2000) ¹³	㉣ 정읍 신귀녀 (1996)	㉤ 정읍 전금순	
						(1992) ¹⁴	(2006)
곳 시작		조왕석	지도서	지두서	성주국	내림	부정풀이
산자 발원	철용석	성주국	조왕석	삼신석	조왕국	조왕국	
	선영알림	삼신국	성주국	칠성풀이	성주국	천룡국	
	지신석	조상국	삼신석	장자풀이	철룡반	성주국	
	서낭석		칠성풀이	손님석	칠성풀이	지신국	
	칠성풀이		장자풀이	지신석	조상석	조상청문	
	손님석			제석국	제석국	칠성풀이	
	장자풀이				손님석	조상국	
	성주석				장자풀이	손님국	
	조상석				지신풀이	제석국	
					조상해원풀이		
망자 천도	오구물림	고꾸러국	오구물림	오구물림	씨김국	지옥풀이	
	소당개시김 (오구시김국)	길뒹음국	조상국 (넋올리기)	조상국		오구세왕풀이	
	전올리기		염불	넋올리기		씨김	
	고풀이		씻김	씻김		넋전올리기	
	질뒹이		고풀이	고풀이		길뒹음	
				천근맞이		예순옥갑풀이	
			길뒹음	장자풀이			
곳 마무리	중천맥이		중천맥이	뒷풀이	내림풀이 (중천맥이)	중천맥이, 내전	

12 부안의 줄포무악은 박소녀·성씨·김씨가 부른 무가가 채록되었다. 박소녀는 조왕석·서낭석·칠성풀이·손님석·장자풀이·성주석·조상석·오구물림·질뒹이·중천맥이, 성씨는 철용석·지신석·칠성풀이·성주석·오구시김국, 김씨는 장자풀이를 노래했다.

13 군산의 김봉순을 채록한 자료에는 성주국 다음에 용왕국(유왕국)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용왕국은 시김국에서 연행하지 않아 표에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14 1992년 채록된 전금순 무가 자료는 김성식, 앞의 책(2000), 219쪽, 237~240쪽을

Ⅲ. 전북 조상굿의 내용 구성

전북 조상굿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장에서는 전북 조상굿의 사실 분석으로써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무가의 구조 찾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우선 부안의 박소녀, 군산의 장금순, 군산의 김옥순 무가부터 분석하고자 한다.

전북 집굿에서는 각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부르기에 앞서 무당의 무조신(巫祖神)인 공심 청신(請神), 우주만물 등의 창제에 관한 〈창세무가〉, 굿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 굿의 연유 등을 밝힌다. 굿 서두에 부르는 이러한 내용을 본 연구에서는 ‘도입’이라 했다. 박소녀는 도입에서 무당의 무조신인 공심을 부르고 굿의 연유를 밝혔으며, 김옥순은 도입에서 굿의 연유를 노래했다. 도입 다음에는 여러 조상을 호명하고 청신한다. 조상굿 초반에는 청신과 더불어 인생무상에 대한 무가를 부른다. 인생무상은 사람이 어떠한 노력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조상굿에서만 노래한다.¹⁵

박소녀, 장금순, 김옥순의 조상굿은 전반부에서 망자의 임종·장례 및 저승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후반부에서 조상을 염불로 천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사람의 숨이 멎으려면 저승사자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전반부에

참고했다. 2006년에 조사된 자료에서는 조상굿을 세 굿거리로 확대하여 행했으나, 1992년에 채록된 자료에서는 조상석 하나로 진행했기 때문에 1992년에 행해진 굿 절차도 표에 나타났다.

- 15 인생무상에 관한 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꽃도 졌다 다시 피고 잎도 졌다 다시 피련마는 북망산천을 가고 보니 바람도 쉬어넘고 구름도 쉬어넘건만은 이 내몸은 다시 오도못허네 …”. 임석재, 앞의 책(1970), 192쪽에 박소녀 사실. “말 잘하는 소진 장의도 육국은 달렸으나 염라대왕 못 달래고 할 일없이 죽어가고 기운 좋은 향우 역사 죽는 땅의 기운 없이 죽는지라 … 사람한번 죽어지면 다시 돌아 못오느니 …”. 임영춘, 『전북 전통 민속(下)』(전주: 전라북도청, 1990), 798~799쪽에 김제 사실.

서는 저승사자의 등장부터 시작한다.

무가에서 저승사자는 지역마다 명칭이 다른데¹⁶, 주로 3인이 함께 등장하므로 일명 삼사자라고도 한다. 저승사자는 방문을 번쩍 열어 성명을 세 번 부르거나 우레같이 세 번 호통 치어 사람의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망자를 저승으로 데리고 간다. 보통 저승사자의 모습은 TV 드라마의 영향으로 갓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나, 무가 사설에서는 검은 군복을 입고 오른손에 철로 만든 몽둥이와 왼손에 쇠사슬을 들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망자의 숨을 멈추게 하고 삶의 미련이 남은 망자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저승사자의 역할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선비 같이 점잖은 모습보다는 망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무가에서의 모습이 더욱 저승사자답다고 생각된다.¹⁷

인간의 죽음 다음에는 장례 지내는 과정이 나온다. 박소녀 사설에서는 임종을 확인한 자손이 애통히 눈물지었다고 하여, 이를 ‘곡(哭)’으로 구분했다. 이다음에는 한 사람이 망자가 생전에 입었던 옷을 지붕 위에서 휘두르며 혼백을 부르는 고복(梟復)을 행한다. 고복은 영혼이 돌아오시라는 의미로 혼을 부른다하여 초혼(招魂)이라고도 한다.¹⁸ 고복을 했으나 망자가 다시

16 부안의 박소녀 사설에서는 일직사제·서방사제·저승사제 해원춘·이승사제 이덕준·저승사제 강림도령, 군산의 장금순 사설에서는 천하궁 사제 이춘비기·지하궁 사제 조리제왕·이승사제 강림도령·저승사제 월직사제, 군산의 김옥순 사설에서는 천하사제 춘복·이승사제 강림도령·저승사제 월직사제 등 저승사자의 명칭이 보인다. 임석재, 앞의 책(1970), 189~200쪽; 김태곤, 앞의 책(1971), 86~98쪽; 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5-4: 전라북도 군산시·옥구군 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358쪽.

17 임재해, 『전통상례』(서울: 대원사, 2014), 22쪽을 참고하면, 상여소리 중에는 저승사자가 망자를 저승으로 데리고 갈 때, 망자를 쇠사슬로 묶고 앞뒤로 끌고 밀며 쇠몽둥이를 사정없이 휘두르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조상गत에서 저승사자가 왜 쇠사슬과 쇠몽둥이를 들고 있는지 이해된다.

18 주진곤, 「불교와 타종교의 상·장례 의식 절차에 대한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53쪽.

살아나지 않으면, 저승사자에게 망자를 저승에 편안히 인도하길 바라는 뜻에서 사자상을 차린다. 삼사자이기 때문에 상에다 밥·돈·짚신을 세 개씩 놓는다. 이어서 자손이 머리를 풀고 곡을 하여 사람들에게 초상을 알리는 발상(發喪)을 한다.¹⁹

장금순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소렴(小斂)과 소렴한 다음 날 죽은 지 사흘째에 행하는 입관하는 과정인 대렴(大斂)²⁰을 노래했다. 박소녀와 장금순 무가에는 발인(發引)하는 내용이 있는데, 박소녀는 열두 명의 상여꾼과 명정(銘旌)·공포(功布)·삽(鬻)을 앞세워 운구하는 것을 묘사했다. 그리고 박소녀는 묘소에 도착해서 송죽으로 울을 삼아 평토제와 산신제를 올리는 내용을 부른다. 김옥순은 땅을 파서 회다지고 봉분을 만든 사설을 노래했다. 이렇듯 장례 과정은 주로 유교식 상장례(喪葬禮)를 따르는 가운데 사자상같이 민간신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절차도 포함된다.

다음은 망자가 저승사자와 함께 저승을 가는 여정이 이어진다. 박소녀는 망자가 북망산천에 올라 자손·친구에게 하직하고 저승길 가는 것과 춘향가의 <기산영수> 대목과 비슷한 내용에서 중국 고사(古史)에 빗대어 저승 가는 길을 묘사하기도 했다.²¹ 장금순은 열두산·열두고개·먼산은 암암·근산은 중중하다는 것을 통해 저승 가는 길의 멀고 험함을 나타내고, 가는

19 유교 상례에서는 발상 전에 시신을 바르게 하는 수시(收屍)를 하지만, 세 무녀의 무가에서는 수시가 생략됐다. 주진곤, 위의 논문(2004), 54쪽.

20 소렴과 대렴에 대한 내용은 주희(저), 임민혁(역), 『주자가례』(서울: 예문서원, 1999), 236~256쪽을 참고했다.

21 “기산영수 별건곤 소부 허유 놀아지고, 채석강 추야월에 소동파 따라가면, 양양강 수 맑은 물으 자래업을 따라가면, 칠산에 뜬 배에 쿵쿵 울려서, 노를 저어서 어데로 가시려 매를 타고 가시려오, 서왕모 요지연을 따라가면 …”. 임석재, 앞의 책(1970), 194쪽. 이 비슷한 사설이 뒤에서 살펴볼 군산의 김봉순 사설에서도 보인다. “기산영수 별건곤 소부 허유 놀아지고, 서왕모 요지연의 혼을 보러 따라가며, 채석강 명월야는 이적선을 보러가며, 적병강 추야월 소동파를 보러가며, 상산 바둑 두던 사호선생을 보러가며”. 김성식, 앞의 책(2000), 56쪽.

날은 있으나 오는 날은 없다는 등으로써 기약 없음을 노래했다. 김옥순 사설에서는 망자가 저승사자 앞세우고 이승사자 뒤따라서 저승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제 후반부의 염불 천도로 진행되는데, 박소녀는 그전에 육십갑자(六十甲子)와 납음오행(納音五行)을 부른다. 납음오행은 오행(五行)인 토(土), 금(金), 목(木), 화(火), 수(水)가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 오음(五音)에 안배되고, 이를 육십갑자 내에서 수로 계산하여 납음을 찾는다.²²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한 납음의 기운으로 우리 인간이 생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칠성님과 일월성신 등에 도움으로 자손의 안녕을 빈다. 이렇듯 박소녀는 발원 중간에 납음오행에 대한 사설을 부른다. 참고로 정음의 전금순 무가에서는 납음오행을 해원풀이에서 노래한다.²³ 따라서 전북 조상굿에서는 납음오행을 발원 중간과 조상을 해원(解冤)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노래한다.

조상신을 염불로 천도할 때 박소녀는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해서 부르고, 김옥순은 ‘나무아미타불’을 후렴구로 노래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염불무가>로 구분했다. 세 무녀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불경은 <법성계>²⁴, <극락세

22 천간의 오행수는 甲乙:1·丙丁:2·戊己:3·庚辛:4·壬癸:5, 지지의 오행수는 子午丑未:1·寅申卯酉:2·辰戌巳亥:3이고, 납음오행수는 木:1·金:2·水:3·火:4·土:5(각:1·상:2·우:3·치:4·궁:5)인데, 천간과 지지를 합하면 납음오행수가 된다. 가령 甲子是 甲이 1·자자가 1로 총 2가 되어 납음오행수에서 金이 된다. 무진戊辰은 무戌가 3·진辰이 3으로 합이 6인데, 총수가 5 이상이면 5를 뺀 수로 계산하여 납음오행수에서 1인 木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한 납음은 甲子·乙丑 海中金부터 서른 개다. 최원호·김기승, 「고대(古代) 율러(律呂)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7권 제1호(2022), 70~71쪽.

23 육십갑자와 납음오행은 『육십갑자해원경』에서도 독송하는데, 이 경을 원혼이나 조상신을 해원할 때 구송하므로 전금순도 조상신의 해원을 위해 납음오행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24 신라의 의상의 대표적인 저술인 <법성계>는 7言 30句 210字의 偈頌으로 화엄사상을 집약한 것이다. 오미영, 「의상 『화엄일승법계도』의 법계관 연구」, 동국대학교 석

계십종장엄), <미타인행사십팔원>이며, 이 중 <극락세계십종장엄>과 <미타인행사십팔원>은 <장엄염불>²⁵에 속한다. 이 외에도 장금순은 <천수경>²⁶을 구송한다. <법성계>, <천수경>, <장엄염불>은 불교식 장례에서도 망자의 왕생을 축원할 때 독송되므로²⁷, 조상굿에서도 망자의 천도를 위해 이러한 불경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장금순의 무가는 다른 연행자에 비해 후반부 내용이 가장 길다. 염불 외에도 청·적·백·흑유리의 사방세계와 여기에 황유리세계를 더한 오방세계²⁸를 조상을 천도하는 과정에서 부른다.

조상굿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십대왕(十大王)과 해원신(解冤神)을 호명한다는 점이다. 십대왕은 시왕(十王)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자의 죄를 재판한다. 조상을 천도하기 위해서는 십대왕에게 재판을 잘 받아 조상이 좋은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십대왕을 열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소녀는 조상들이 십대왕에게 매여 가셨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각 신과 십대왕을 결합하여 호명한 해원신²⁹은 망자가 원통함을 풀고 극락세계로

사학위논문(2004), 1, 15쪽.

- 25 <극락세계십종장엄>은 極樂의 열 가지 모습, 즉 十種莊嚴을 觀하면서 念佛하는 것이고, <미타인행사십팔원>은 阿彌陀의 因行을 觀하면서 하는 念佛의 形態라고 한다. 이 두 염불을 구송하는 것을 장엄염불이라 한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민속대관』(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0), 483~518쪽.
- 26 <천수경>은 千手千眼觀世音菩薩을 신앙하는 경이다. 하태완, 「현행 천수경의 오기에 대한 고찰」, 『동국사상』 제19권(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986), 140쪽. 천수경은 불교나 무속 등에서 많이 구송되어 대중에게도 매우 친숙한 불경이다.
- 27 서수생, 「불교식 장례법」, 『영대문화』 제16집(영남대학교 총학생회, 1983), 76쪽.
- 28 본 글에서 오방세계라고 칭한 것이 불교 장례의식 중 동·서·남·북·중앙에 계신 부처님을 청하여 예배드리는 절차인 五方禮를 행할 때에도 청·적·백·흑·황유리세계가 동일하게 언급된다. 이재원, 「한국불교의 의례·의식 연구: 시다림·다비의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34-36쪽.
- 29 '염나대왕해원신 염나시방해원신 동산대왕해원신 동산시방해원신 사천대왕해원신 사천시방해원신 북망산천해원신 북으며그해원신 한우평상해원신', '제일 진광대왕 해원/제이 초광대왕 해원/제삼으로 송제대왕 해원/제사으는 오관대왕 해원/제오에 전륜대왕 해원신/제육 변성대왕 해원신/제칠에 태산대왕 해원신/제팔에

들어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부의 장례 과정에서 유교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후반부에서는 불교 경전 구송을 위시하여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교적 색채가 짙다.

박소녀는 염불 구송 다음으로 〈신임무가〉를 노래하여 자손의 명복을 빌고, 조상을 천도와 오신(娛神)한다. 〈신임무가〉는 “신이야 신이야 신이로다”의 사설로 시작하여 ‘신임무가’라 명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뒤에서 분석할 정읍의 전금순도 조상굿 후반부에 이와 유사한 무가를 부른다.

다른 가신(家神)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는 집굿을 행하는 목적에 의해 대체로 집안의 안녕을 발원하는 것으로 굿을 끝낸다. 전북 조상굿에서도 박소녀는 마지막에 발원하고, 장금순은 조상을 염불로 천도하는 내용 중간에 발원에 관한 무가를 부르기는 하지만, 세 무녀 모두 조상신을 천도하는 것으로 조상굿을 마친다. 이것이 집굿에서의 다른 가신과 조상신의 차이점이다.

세 무녀 중 김옥순만 조상굿 전반부에 망자가 저승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노래한다. 이 내용은 이어서 살펴볼 김제, 군산의 김봉순, 정읍의 신귀녀의 무가에서도 묘사되었다.

는 염라대왕 해원신/제구여는 도시대왕 해원신/제집은 철운대왕 해원신’. 김태곤, 앞의 책(1971), 92쪽에 장금순 사설.

표3- 박소녀·장금순·김옥순의 조상굿 내용 구성

부안 박소녀		군산 장금순		군산 김옥순	
① 도입	무조신 청신	① 인생 무상, 청신	인생무상	① 도입	굿 연유
	굿 연유		청신		② 신 호명, 청신, 감응
② 청신 (신 호명, 가중으로 오는 조상)		② 임종, 장례, 저승	인생무상	③ 인생무상	
③ 십대왕, 인생 무상	십대왕에 매인 조상		저승사자 등장·치례	④ 임종, 장례, 저승	저승사자 등장· 치례, 임종
	인생무상	임종	장례 과정(고복, 소렴, 대렴, 운구)		
④ 임종, 장례, 저승	저승사자 등장	망자 저승 가는 길	⑤ 염불 천도	망자 저승 가는 길	
	임종	공덕		저승 재판	
	장례 과정(곡, 고복, 사자상, 발상, 운구)	자손 집에 오는 조상 천도(저승 가는 길 묘사)		〈염불무가〉	
	망자 저승 가는 길	〈법성계〉		〈법성계〉	
	장례 과정 (평토제, 산신제)	십대왕		십대왕	
	〈기산영수〉	염불로 천도		〈염불무가〉	
	중국 고사(古史)	사방세계 (청·적·백·흑유리 세계)		〈극락세계십중장엄〉	
	발원	〈미타인행사십팔원〉		〈미타인행사십팔원〉	
	육십갑자와 납음오행	〈법성계〉		십대왕 해원신, 각 해원신	
	⑤ 염불 천도, 제살 발원	공덕		⑥ 천도	
⑥ 발원, 천도, 오신	염불로 천도, 제살 발원	염불로 천도			
	〈염불무가〉	최 벗고 지옥 면하기를 기원			
⑦ 발원, 천도	〈미타인행사십팔원〉	천도			
	〈극락세계십중장엄〉	〈신묘장구대다라니〉			
	〈법성계〉	천도, 발원			
		각 해원신, 십대왕 해원신			
		염불로 죄 벗고 천도			
		천수경: 〈정구업진언〉,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개경계〉,〈개법장진언〉			
		경제목, 〈계수문〉			
		〈신묘장구대다라니〉			
		발원, 염불로 천도			
		〈법성계〉			
		염불로 천도			
		저승 가는 길, 인생무상			
		염불로 천도			
		관세음보살(11보살) 명호			
		염불로 천도			
	(가면 어느 때 다시 오리)				
	염불로 천도				
	보살 명호				
	오방세계(청·적·백·흑·황유리 세계)				
	〈극락세계십중장엄〉				
	④ 천도, 송신				

김제, 군산의 김봉순, 정읍의 신귀녀의 무가는 조상굿 전반부에 해당하는 망자의 임종과 장례 과정 및 저승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채록되어, 앞에서 분석한 세 무녀의 무가 사설에 비해 그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 그러나 김제·김봉순·신귀녀는 망자가 저승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모두 노래했고, 김제와 김봉순만이 망자가 저승배 타고 가는 여정과 저승에 당도한 것을 나타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신귀녀만이 유교의 상장례 절차 중 습(襲)과 성복(成服)을 포함했다. 습은 소림 전에 행하는 것으로, 시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절차이다. 성복은 대림의 다음 날 임종한 지 나흘째에 가족들이 상복을 갈아입는 의례이다.³⁰

표4-김제·김봉순·신귀녀의 조상굿 내용 구성

김제 미상		군산 김봉순		정읍 신귀녀	
① 인생무상		① 도입	굿 연유	① 인생무상	
② 임종, 장례, 저승	임종	② 인생 무상	인생무상, 저승사자 따라 가는 망자, 인생무상	② 임종, 장례, 저승	저승사자 등장·치레
	저승사자 등장				저승사자 만난 망자
	저승사자 따라 가는 망자				임종
	장례 과정(사자상, 고복, 소림, 대림, 운구)		<기산영수> 중국 고사(古史)		장례 과정 (고복, 염·습, 성복, 운구)
	인생무상		인생무상	망자 저승 가는 길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장례 과정(봉분)	③ 천도		저승 재판	
	망자 저승 가는 길	④ 저승	저승배 타고 가는 망자	② 천도	
	저승배 타고 가는 망자, 저승 당도		저승 당도		
	저승 재판(문초)		저승 재판		
	십대왕 해원신				

30 주희(저), 임민혁(역), 앞의 책(1999), 212~218쪽, 256~257쪽.

정읍의 전금순이 부른 조상굿은 이제까지 살펴본 연행자와 내용 구성이 많이 다르다. 2006년에 채록된 무가집을 참고하면, 조상굿을 조상청문·조상굿·조상해원풀이의 세 굿거리로 확대했다.³¹ 그 이유는 조상이 자손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중요한 신이자 망자를 천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세 굿거리에 걸쳐 조상신을 위해 굿을 행하는 것이라 한다.³²

조상청문은 조상을 청신하여 조상신께 온갖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을 잘 받고 흠향³³하시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참고로 전금순 무가에서 온갖 정성을 들여 굿을 준비했다는 내용을 '치성'으로 구분했다. 조상청문에서 <천근>³⁴과 <신풀이무가>·<고풀이무가>도 채록되었는데, 전금순만 조상 관련 절차에서 <천근>과 <고풀이무가>를 부른다.

전금순이 부른 조상굿에서는 망자의 임종·장례 및 저승 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고 치성 드려 준비한 굿을 잘 받으시고 소원 성취를 해주십사 발원한다. 이 거리에서도 <신풀이무가>·<고풀이무가>를 부른다.

조상해원풀이는 조상청문에서 모셔온 조상 가운데 특히 원한이 깊은 조상을 해원시켜 천도시키는 절차이다.³⁵ 이 굿거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굿 잘 받고 원한 풀어 해원 받아 가시라고 비는 (1) 조상해원풀이, 십도대왕(십대왕)에게 매인 것을 풀고 극락왕생 천도를 바라는 (2) 지옥풀이, <강타

31 전금순의 조상굿은 본래 세 굿거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식, 앞의 책(2000), 219쪽, 237~240쪽을 참고하면, 1992년에 현지조사한 자료에서는 조상굿 한 굿거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표2> 참고). 다만 조상굿 내에서 조상풀이와 해원풀이로 구분했다. 조상풀이와 해원풀이는 2007년에 발행한 무가집에서 각 조상청문과 조상해원풀이 중 (4)예순육갑해원풀이에서의 내용과 비슷하다.

32 이영금, 『전북 셋굿굿: 전금순의 무가』(서울: 민속원, 2007), 45, 55쪽

33 흠향도 넓은 의미에서의 감응이므로, 사실 구조에서 감응으로 구분했다.

34 <천근>은 이경엽, 「전남지역 '망자굿' 무가의 전개 유형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3집(1996), 403~437쪽을 참고하면, 전남에서는 망자를 送神하는 기능을 하여 망자굿 관련 거리마다 부르지만, 전북은 씨금굿 절차에서도 이를 많이 행하지 않는다.

35 이영금, 앞의 책(2007), 54쪽.

령)과 <염불가>를 부르며 조상굿으로 진행한 (3) 길뒹음, 조상을 염불로 천도하는 (4) 예순육갑해원풀이의 네 개의 부속거리로 구성된다. 조상해원풀이에서도 네 부속거리 모두 <신풀이무가>와 <고풀이무가>를 후반부에 노래한다.

<신풀이무가>는 “신이여 신이여 신이로다”로 노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박소녀의 <신임무가>와 같은 계열의 무가이다. 전금순의 조상 관련 절차에서의 <신풀이무가>는 오신, <고풀이무가>는 조상의 해원을 위해 부른다. 그런데 <고풀이무가>는 조상해원풀이 중 (1) 조상해원풀이에서 조상신의 감응(感應)³⁶, (4) 예순육갑해원풀이에서 조상의 해원뿐만 아니라 조상께 발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른 전북 조상굿의 연행자들이 천도로 굿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전금순은 조상청문·조상굿과 조상해원풀이 네 개의 세부절차에서 모두 발원으로 마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토대로 전북 조상굿의 기본 구조는 ‘도입-청신-인생무상-임종·장례·저승-염불 천도-(발원)³⁷-(오신)³⁸-천도’로 정리된다. 전북 조상굿의 구조 가운데 도입과 청신은 다른 곳에서도 행하지만, 나머지 구조는 전북 조상굿의 특징이자 조상신을 잘 나타내는 사설 내용이기도 하다.

36 조상신께 정성 드린 것이 통하여 굿을 잘 받으시라고 하는 내용을 감응으로 구분했다.

37 발원은 박소녀가 조상굿 전반부와 후반부 뒷부분에, 장금순이 후반부의 염불 천도 중간에 하여, 연행자간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고, 나머지 연행자들은 발원하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집굿에서 신께 발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로 표시했다.

38 오신은 박소녀와 전금순이 <신임무가> 계열 무가를 부른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무가를 두 무녀만이 노래했기 때문에 ‘()’로 표시했다.

표5-전금순의 조상굿 내용 구성

정음 전금순							
조상청문	조상굿		조상해원풀이				
① 청신, 감응(흠향)	① 청신,	무조신 청신	(1) 조상 해원 풀이	① 도입	무조신 청신		
② 도입	무조신 청신	굿 연유		② 치성(흠향), 청신	무조신 청신	굿 연유	
	공간 우주론	청신, 감응(흠향)			음식 치성	청신, 공덕	
③ 청신, 감응(흠향), 치성	② 신	오방위 천황 해원신,		③ 조상 관련 내용	③ 오신	〈천자문〉	
	호명	12지지 남녀 해원신				흠향, 청신	
④ 〈천근〉	③ 조상 천도, 해원한 조상에게 소원 기원			(2) 지옥 풀이	④ 감응	저승 가는 길 조언	
⑤ 오신·고풀이	④ 청신, 치성	각 조상에게 굿 바침				인생무상	굿 연유
	⑥ 발원	⑤ 치성			조상 치성 받길 빌	[아니리]	
⑥ 발원	⑥ 〈축문〉				(3) 길뉘음	④ 고풀이	〈신풀이무가〉
	⑦ 오신·고풀이	〈신풀이무가〉,					⑤ 발원
		〈고풀이무가〉	(4) 예순 육갑 해원 풀이		④ 고풀이, 발원	〈신풀이무가〉	
	⑧ 발원	⑧ 발원				〈고풀이무가〉	
(1) 조상 해원 풀이	① 심도대왕에 매인 고향들을 육십갑자 열시대왕 해원경으로 천도		(2) 지옥 풀이		② 오신	[아니리]	
	② 오신			〈신풀이무가〉			
	③ 고풀이			〈고풀이무가〉			
	① 〈강타령〉		(3) 길뉘음	③ 오신	〈신풀이무가〉		
	② 〈염불가〉				〈고풀이무가〉		
	③ 오신		(4) 예순 육갑 해원 풀이	④ 고풀이	① 천·지 해원신, 오방위 천황 해원신, 육십갑자와 납음오행		
	④ 고풀이				② 천도		
	⑤ 오신			④ 염불	③ 보수 받아 저승길 가는 조상, 염불로 천도		
	⑥ 고풀이, 발원				염불로 천도		
	⑦ 오신			⑤ 오신	〈극락세계십중장엄〉		
⑧ 발원		〈미타인행사십팔원〉					
⑧ 발원		⑥ 고풀이, 발원		〈고성염불십중공덕〉			
⑧ 발원				[아니리]			
⑧ 발원		⑦ 오신	〈신풀이무가〉				
⑧ 발원		⑧ 발원	〈정구업진언〉				

인생무상은 조상굿에서만 부르는 내용인데, 조상신의 본격적인 내력을 풀기 전에 어떠한 노력에도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임종으로 이어짐으로 도입부의 기능을 한다. 다른 거리 사설에서는 각 신의 근본과 내력을 담고 있는 예가 많다. 이처럼 조상굿에서도 사람이 죽어 신으로 모신 조상의 내력을 풀기 위해 사람의 죽음·장례 과정·저승 가는 길 및 저승에서 재판받는 장면 등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죽은 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조상굿의 특징 때문에 후반부에 조상을 염불로 천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상굿 마지막에서도 조상신을 천도하면서 굿을 마친다.

조상신의 이러한 특성은 목은시꺼긔 절차 구성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2장에서 군산의 김봉순과 정읍의 신귀녀만이 목은시꺼긔 절차 구성 중 망자를 천도하기 위해 부르는 후반부에 조상굿을 배치한 것을 살펴보았다. 조상굿을 연행하는 목적은 집안의 안녕을 발원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연행자는 산자 발원을 위해 행하는 목은시꺼긔의 전반부에서 조상굿을 하지만, 조상굿이 망자를 위해 행하는 곳이기도 하여 목은시꺼긔의 후반부에 배치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죽은 사람을 위해 열리는 조상굿과 시꺼긔의 동일한 연행 목적 때문에 박소녀는 전반부의 조상굿과 후반부의 시꺼긔 사설 내용을 비슷하게 구성한다. 전금순 또한 조상해원풀이의 (2) 지옥풀이, (3) 길뉘음, (4) 예순육갑해원풀이를 후반부의 시꺼긔 절차에서도 연행한다.

전금순의 무가는 전북 다른 연행자들과 내용 구성이 많이 다르다. 이 무녀는 조상굿을 조상청문·조상굿·조상해원풀이의 세 굿거리로 확대하여 연행했다. 세 종류의 조상 관련 절차에서 모두 조상신을 위해 정성껏 굿을 준비했다는 치성, 오신의 <신풀이무가>·조상의 맺힌 원한을 풀고자 하는 <고풀이무가>를 부르고 마지막은 천도가 아닌 발원으로 끝낸다. 도입, 청신, 염불로 천도하는 대목을 부른 것은 다른 무녀들과 비슷한 점이다.

전북 조상굿은 저승사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저승 가는 여정, 저승에 당도했을 때 마주한 풍경, 저승 재판 등을 묘사한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조상굿을 통해 유교와 민간신앙에 의한 한국 전통 장례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후반부에 조상신을 염불로 천도하는 내용에서는 불교식 장례문화 등 불교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조상굿에서는 조상신 해원을 위해 구송하는 납음오행 등도 담겨 있다. 따라서 전북 조상굿에서는 유교·민간신앙·불교·기타 철학사상이 잘 결합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한국의 삶과 전통문화가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전북 이외 지역 조상굿의 내용 구성

이 장에서는 전북 외에 지역인 황해도·평양·서울·경기도·충남·전남·경북에서의 조상굿 무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중 강신무에 속하는 황해도·평양·서울부터 살펴보겠다.

황해도에서는 청신무가인 만세받이에서 조상 청신, 오신 조상님들의 감응(흡향), 인생무상, 배에 선녀와 동자를 싣고 저승 가는 여정 등을 노래했다. 다음은 염불로 조상을 천도하는 대목이 이어지고, 공수의 형식으로 조상들을 차례대로 모신다. 조상을 모시고 왔던 사자 송방(저승사자)을 위한 무가도 부르는데, 저승사자의 치레를 묘사하고, 악한 사자 물러가고 어진 사자가 극락으로 모셔간다고 한다. 마지막은 삼베를 찢으면서 송신(送神)무가인 날만세받이를 하여 조상을 천도한다.

평양은 재수굿 중 다섯 번째로 '조상굿', 열네 번째로 '가는 조상'을 구분하여 연행한 점이 특이하다. 이 지역의 조상 관련 굿의 내용은 간략하다.

조상굿에서는 조상을 청신하고, 공수로 복 많이 주고 간다는 발원을 한다. 가는 조상에서는 <염불무가>로 조상을 배송하고, 공수로써 청신했던 조상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을 부른다. 서울에서는 4대 조상을 차례대로 모신다. 각 조상은 청신으로 시작하여 공수로 발원하는 내용을 부르고, 조상이 손자들 잘되게 돕고 간다는 송신으로 마무리한다.

황해도·평양·서울은 ‘공수’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세습무에서의 발원이 이들 지역에서는 신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식이다. 그리고 조상을 한 명씩 모시는 것과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부른 것은 전북과 다른 점이다. 특히 서울은 4대 조상을 모시기 때문에 ‘청신-발원(공수)-송신’을 네 번 반복한다. 황해도에서는 후반부에 저승사자 관련 무가를 부르는데, 조상을 저승사자가 거느리고 왔다고 인식한 것과 저승사자의 치례를 설명한 것 등이 타지역과 다르다.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토대로 세 지역의 조상굿 사설 구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가) 황해도: 만세받이(청신-감응-인생무상-저승 가는 길)-염불 천도·<염불무가>-조상모심(공수)-저승사자-달만세받이(천도)
- (나) 평양: 청신-발원(공수) / <염불무가>-송신(공수)
- (다) 서울: 4대 조상모심(청신-발원(공수)-송신)

경기도 화성은 조상신을 청신하면서 시작한다. 이다음에는 군웅이 조상을 모시고 다닌다고 하여 군웅의 치례와 군웅이 먹을 음식에 대한 치례를 초반에 부른다. 그리고 다시 조상을 청신한 후, 조상이 굿 받으러 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본 논문에서의 연구 대상자 중 심복순만이 조상의 근본을 밝힌다. 여기까지가 ‘조상청배’ 절차이고, 이어서 여러 조상을 모시는 ‘조상영실’³⁹을 한다. 이 지역 무녀는 세습무이지만, 조상영실에서 조상신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특이하다. 마지막에는 조상신에게 굿을 즐겁게 받으시라는 감응과 부귀공명을 바라는 발원을 한다. 화성에서는 조상의 시중을 드는 하위신인 하졸(下卒)에 대한 사설로 마무리한 점이 다른 지역의 조상굿과 다르다. 하졸 관련 무가는 무녀가 하졸, 고수가 주인 역할을 맡아 말로써 진행한다.

전남 진도는 특이하게 <성주풀이>로 시작한다. 그리고 조상들을 모시는 내용을 반복해서 부르며, 이 대목을 부를 때에는 매번 후렴으로 마치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 (마)를 참고하면, 조상모심 ①·②·③이 모두 청신으로 시작하지만, 내용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후렴 ①·②·③도 감응(흡향)은 공통으로 보이는 구조이나, 마지막은 송신 아니면 천도로 끝낸다.

경기도 화성과 전남 진도는 조상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한 사설을 초반에 부른 점이 동일하다. 그리고 화성은 조상이 굿 받으러 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근본 풀이를 한 점, 진도는 조상을 모시는 무가를 반복해서 부르고 후렴구로 마무리한 점이 특징이다.

(라) 경기도 화성: 조상청배(청신-군웅 및 음식 차례-청신-굿 받으러 오는 모습-근본)-조상영실(조상모심)-감응·발원-하졸(下卒)

(마) 전남 진도: <성주풀이>-①조상모심(청신-치성-감응-발원-후렴①[감응·송신])-②조상모심(청신-치성-감응-천도-발원-후렴②[감응·천도])-③조상모심(청신-인생무상-감응-천도-후렴③[감응·송신])⁴⁰

39 조상영실 중 靈室은 영혼을 모셔 두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무속에서는 영혼을 뜻한다고 한다. 김태곤, 『한국무가집 3』(서울: 집문당, 1978), 248쪽.

40 모시는 조상이 많을 때는 후렴①과 ②를 번갈아가며 하고, 마지막에 후렴③을 부른다고 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진도무속 현지조사: 채씨자매를 중심으로』(국립민속박물관·전라북도, 1988), 114쪽.

충남 부여는 도입과 청신으로 시작하여 조상이 굿 받으러 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조상님의 죽음에 대해 서러움과 원통함을 표현한다.

경북 영일은 부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도입과 청신에 대한 내용을 노래한다. 그리고 치성으로 굿을 준비했음을 고하고, 다시 조상신을 청한다. 이다음에는 조상이 굿 받으러 오는 모습이 이어지고, 조상님의 차례에 대해 비중 있게 묘사한다. 조상님이 굿 받으러 내려오는 모습과 청신을 또다시 부르고, 지극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에 대해 노래한 후, 발원으로 마무리한다.

이들 두 지역의 공통점은 도입과 청신으로 굿을 시작한 것과 조상님이 굿 받으러 오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부여에서는 굿 마지막에 죽음의 원통함에 관해 길게 부르고, 영일에서는 조상님이 굿 받으러 오는 것과 조상신의 차례에 비중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바) 충남 부여: 도입-청신-굿 받으러 오는 모습-죽음의 원통함

(사) 경북 영일: 도입-청신-치성-청신-굿 받으러 오는 모습-차례-굿 받으러 오는 모습-청신-치성-발원

전북 이외 지역 조상굿에서는 공수가 있는 지역, 굿 초반에 조상이 아닌 다른 신을 언급한 지역, 도입으로 시작하고 조상이 굿 받으러 오는 모습을 비중 있게 묘사한 지역의 세 부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북이 아닌 지역에서는 조상을 차례대로 모시며, 굿 받으러 온 조상들이 감응(흡향)하여 후손들의 발원을 들어주는 것이 골자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지역과 전북의 조상굿 사설을 비교 분석하겠다.

V. 전북과 타지역과의 조상굿 사설 내용 비교

전북과 전북 이외 지역에서 드러난 조상굿의 공통점은 굿 초반에 조상신을 청신하고, 조상신께 재가집의 안녕을 위해 발원을 드리는 것이다. 전북과 같이 조상신을 천도하는 것은 황해도·평양·전남 진도에서도 발견되나, 나머지 지역인 서울·경기도 화성·충남 부여·경북에서는 천도에 대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전북과 전북 이외 지역에서의 조상굿은 유사점보다 차별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전북은 조상신이 되기 전 사람의 임종·장례 및 저승 가는 과정 등으로써 조상신의 내력을 푸는 것과 조상신을 염불로 천도하는 데 큰 비중을 둔다. 다시 말해, 이 지역의 조상굿에서는 사람에서 신이 되는 과정을 중요시하며, 조상신은 사람이 죽어서 신으로 모셔졌기 때문에 조상을 천도 시켜 집안에 탈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천도에 정성을 드린다고 할 수 있다. 전북 이외 지역에서는 조상신을 차례대로 모시거나, 조상신이 굿 받으러 오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전북에 비해 천도보다는 송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북은 재가집의 현재의 안녕과 재수를 기원하는 것 못지않게 조상의 '역사'도 중요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조상신을 청신하고 잘 대접하여 후손들의 명복을 비는 '현재'에 더욱 집중한다. 또한, 인간이 죽어 모셔진 신이라는 조상신의 특성을 전북에서는 임종·장례·저승 가는 과정과 염불로 천도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면, 전북이 아닌 지역에서는 굿 받으러 온 조상을 다시 돌려보내거나 충남 부여처럼 죽음의 원통함 정도로만 나타낸다. 즉 전북 이외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상신의 특성이 미약하다.

전북 이외 지역에서의 사설 내용은 조상신을 잘 모시고 집안의 평안과

재수 등을 기원하는 데에 집중하는 특징으로 인해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반면, 전북에서는 이 지역에서만 부르는 무가 사설이 많고, 조상신의 내력을 푸는 것과 조상신을 염불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철학사상과 한국전통 문화가 반영되어, 타지역에 비해 무가 사설 내용이 다양하다.

VI. 맺음말

전북 조상굿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전북 조상굿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 조상굿의 사설 구성은 짜임새가 있고, 무가 내용이 다양하다. 자신들의 무조신(巫祖神)에게 굿 시작을 알리고, 굿의 연유를 밝힌 후에 본격적인 조상 관련 내용을 부른다. 전반부에서는 누구나 사람이면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한탄하는 인생무상에 관한 사설을 노래한 다음에 인간이 저승사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고, 망자를 위해 장례 절차를 행하며,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거쳐서 저승에 당도하면 죄를 재판받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조상을 위해 염불을 구송하여 조상이 극락왕생하기를 천도한다. 조상굿 마지막에서도 잘 돌아가시라는 송신보다는 천도로써 마무리한다.

둘째, 전북 조상굿의 구조는 ‘도입-청신-인생무상-임종·장례·저승-염불 천도(발원)-(오신)-천도’이며, 이는 굿의 기본 구조인 ‘청신(請神)-오신(娛神)-송신(送神)’에서 많이 벗어난다. 전북은 조상굿 초반에 인생무상, 전반부에 조상의 내력을 푸는 것과 후반부에 단순히 신을 돌려보내기보다 조상을 천도하는 것을 비중 있게 노래하기 때문에 굿의 기본 구조와 매우

다르다.

셋째, 전북 조상굿의 사설에는 인간이 죽어 받들어 모셔진 신이라는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다른 가신(家神)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 신의 근본과 내력을 설명하듯이 조상굿에서도 사람이 죽어 신이 된 조상이기에 죽음·장례 과정·저승 가는 길·저승 재판 등으로 조상신의 내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상신의 특성 때문에 조상을 염불로 천도하여 가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넷째, 전금순의 조상굿은 다른 연행자의 조상굿과 매우 상이하다. 도입과 청신으로 굿을 시작하고, 염불로 천도하는 대목을 부른 점은 전북 다른 무녀와 비슷하다. 그러나 전금순만이 조상굿을 조상청문·조상굿·조상해원풀이의 세 절차로 확대하여 진행했고, 임종·장례·저승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사설 구조 중 치성과 발원을 비중 있게 부르고, 〈신풀이무가〉와 〈고풀이무가〉를 절차마다 노래했다.

다섯째, 전북 조상굿의 목적은 이 거리를 연행함으로써 조상신의 내력을 풀고 조상신을 염불로 천도하여 가내의 안녕과 자손의 명복을 기원하는데 있음을 사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전북 이외 지역하교의 비교로써 전북 조상굿의 특징을 더욱 드러냈다. 인생무상과 조상신의 내력을 풀고 조상신을 염불로 천도하는 내용은 전북에서만 발견된다. 전북은 집안의 안녕과 재수를 발원하는 것 못지않게 조상의 ‘역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상신의 내력을 노래했다. 반면, 전북이 아닌 지역에서는 굿 받으러 온 조상을 잘 대접하여 조상신이 감응(흠향)하고 후손들의 발원을 들어주는 ‘현재’에 더욱 집중한다. 죽은 조상이 신이 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 전북에서는 천도로 마무리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천도보다는 다시 돌려보내는 송신으로 굿을 마친 경우가 많다.

일곱째, 전북 조상굿에는 유교·민간신앙·불교·기타 철학사상 등과 한국 전통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다. 전북 조상굿에서의 장례 과정은 주로 유교식 상장례(喪葬禮)에 의해 행해지며, 장례 절차 가운데 사자상을 차리는 것, 삼사자에 의해 사람이 죽는 과정, 저승으로 가는 여정 등은 민간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조상을 염불로 천도하기 위해 <법성계>, <천수경>, <장엄염불> 등을 구송한 것은 불교식 장례에서와 동일하며, 조상을 천도하는 과정에서 부른 청·적·백·흑·황유리 오방세계와 십대왕·해원신 또한 불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상굿에서는 조상을 해원시킬 목적으로 납음오행 등을 노래한다. 그리고 전북 조상굿을 통해 한국 전통 장례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연구는 이제까지 일반무가 사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무가 연구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무가 사설 분석으로써 조상굿의 구조를 드러내고, 조상굿의 구조를 파악한 후에는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사설 구성, 조상신의 특성, 조상굿의 목적, 다른 종교 및 철학과의 연관성, 한국의 삶 및 전통문화의 투영 등 조상굿의 여러 특징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전북 조상굿의 사설 연구는 그동안 현지조사를 토대로 집적된 무가 자료집을 활용한 점과 타지역에 비해 일찍이 쇠퇴한 전북 세습무 무가를 연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 국립민속박물관, 『진도무속 현지조사: 채씨자매를 중심으로』. 국립민속박물관·전라북도, 1988.
- 김금화, 『김금화의 무가집』. 용인: 문음사, 1995.
- 김성식, 『전북의 무가』. 전주: 전북도립국악원, 2000.
- 김태근, 『한국무가집 1』. 서울: 집문당, 1971a.
- _____, 『한국무가집 2』. 서울: 집문당, 1971b.
- _____, 『한국무가집 3』. 서울: 집문당, 1978.
- _____, 『한국무가집 4』. 서울: 집문당, 1980.
- 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5-4: 전라북도 군산시·옥구군 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이영금, 『전북 셋김굿: 전금순의 무가』. 서울: 민속원, 2007.
- 임석재, 「제79호 줄포무악」.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1집, 문화재관리국, 1970.
- 임영춘, 『전북 전통 민속(下)』. 전주: 전라북도청, 1990.

2. 단행본

-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편), 『제주도 본풀이의 세계』. 수원: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민속대관』.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0.
- 김헌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파주: 보고서, 2006.
- 임재해, 『전통상례』. 서울: 대원사, 2014.
- 주희(저), 임민혁(역), 『주자가례』. 서울: 예문서원, 1999.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서울: 민속원, 1991.
-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 서울: 예전사, 1986.
- _____, 『한국인의 조상숭배와 효』. 서울: 민속원, 2010.

- 최준식, 『(한국의 풍속)민간 신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1980.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서울: 집문당, 2005.

3. 논문

-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제36호, 2010, 147~184쪽.
- 권선경, 「조상숭배의 사적 영역과 여성: 서울굿 조상거리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65집, 2019, 101~129쪽.
- 김현선,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 『한국무속학』 제11집, 2006, 201~235쪽.
- 김혜정,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양씨아미본풀이>의 유형별 특징과 의미」. 『어문논집』 제88집, 2020, 49~74쪽.
-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_____, 「조상신본풀이 전승 양상: <부대각본>과 <양이목사본>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38집, 2019, 113~149쪽.
- 서수생, 「불교식 장례법」. 『영대문화』 제16집, 1983, 74~83쪽.
- 염원희, 「무속의례에 있어 '신과의 소통'이 갖는 의미 연구: 서울굿 <조상거리>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49집, 2012, 135~161쪽.
- 오미영, 「의상 『화엄일승법계도』의 법계관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윤동환, 「동해안 김씨조상굿의 구성과 특징」. 『실천민속학연구』 제35호, 2020, 727~755쪽.
- 이경엽, 「전남지역 '망자굿' 무가의 전개 유형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3집, 1996, 403~437쪽.
- 이경화, 「<양씨아미본풀이>의 장르 교섭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무속학』 제36집, 2018, 311~329쪽.
- 이용범, 「한국무속에 있어서 조상의 위치」. 『민족과 문화』 제10권, 2001, 193~215쪽.
- 이재원, 「한국불교의 의례·의식 연구: 시다림·다비의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채원, 「조상신앙의 지역적 양상과 성격에 관한 시험적 고찰」. 『지방사와지방문

- 화』 제12권 제2호, 2009, 99-133쪽.
- 이현정, 「〈고전적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제52집, 2019, 93~137쪽.
- 임돈희, 「한국조상의 두 얼굴: 조상덕과 조상탓-유교와 무속의 조상의례의 비교」. 『한국민속학』 제21집, 1988, 133~171쪽.
- 장주근, 「한국 민간신앙의 조상숭배: 유교 제례 이외의 전승 자료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제15집, 1983, 63~80쪽.
- _____, 「무속의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제18집, 1986, 95~107쪽.
- 정진희,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제주도연구』 제32호, 2009, 205~228쪽.
- 조종훈, 「동해안별신굿 부산·경남지역 무악 연구: 조상굿 중 어청보 장단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주진곤, 「불교와 타종교의 상·장례 의식 절차에 대한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최길성, 「특집: 한국 조상숭배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문화인류학』 제20권, 1988, 153~166쪽.
- 최원호·김기승, 「고대(古代) 율려(律呂)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7권 제1호, 2022, 59~74쪽.
- 하태완, 「현행 천수경의 오기에 대한 고찰」. 『동국사상』 제19권, 1986, 139~149쪽.
- 황경숙, 「동남해안지방의 전통적 조상숭배신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2집, 2002, 37~72쪽.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북 조상굿의 사설을 분석하여 조상굿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고찰하고, 전북 이외 지역과의 비교로써 전북 조상굿의 보편성과 특징 등을 밝히고자 했다. 다른 지역 조상굿의 내용 구성은 간단한 경우가 많은데, 전북 조상굿은 내용 구성이 짜임새가 있고 다양하다. 전반부에서는 인생무상에 대해 노래한 후, 사람의 죽음·장례 과정·저승 가는 길·저승에서 재판받는 장면 등으로 조상의 내력을 푼다. 인간이 죽어 모셔진 신이라는 조상신의 특성으로 인해 후반부에서는 조상을 염불로 천도(薦度)하며, 조상굿의 마지막에서도 조상신을 천도하면서 굿을 마친다.

전북 조상굿은 저승사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저승 가는 여정, 저승에 당도했을 때 마주한 풍경, 저승 재판 등을 묘사한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조상굿을 통해 유교와 민간신앙에 의한 한국 전통 장례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후반부에 조상신을 염불로 천도하는 내용에서는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조상굿에서는 조상신 해원(解冤)을 위해 구송하는 납음 오행 등도 담겨 있다. 따라서 전북 조상굿에서는 유교·민간신앙·불교·기타 철학사상이 잘 결합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한국의 삶과 전통문화가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일반무가 사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무가 연구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전북 조상굿의 사설 연구는 그동안 현지조사를 토대로 집적된 무가 자료집을 활용한 점과 타 지역에 비해 일찍이 쇠퇴한 전북 세습무 무가를 연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투고일 2023. 6. 19.

심사일 2023. 7. 22.

계재 확정일 2023. 8. 7.

주제어(keywords) 전북굿(Jeonbuk Gut), 조상굿(Josang Gut), 무가(Shaman songs)

Abstract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haman Songs in Jeonbuk Josang Gut

Im, Nina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nt of an Josang Gut by analyzing the Saseols of the Jeonbuk Josang Gut, as well as the univers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Jeonbuk Josang Gut, by comparing it with its counterparts in other regions. The content of many ancestor Guts of other regions show a simple composition, whereas the Jeonbuk Josang Gut has structure and diversity in the composition of its content. Its first part sings about the transience of life and unfolds the history of ancestors in scenes about the death of people, the funeral process, the route to the next world, and trials in the next world.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ancestral gods based on the worship of people who have died, the second part guides deceased ancestors to Heaven through Buddhist prayers. An Josang Gut ends with guidance of ancestors to Heaven.

The Jeonbuk Josang Gut has interesting parts depicting a scene where a character faces his death by the hand of the angel of death, his journey to the next world, the scenery he faces when arriving in the next world, and his trials in the next world. Ancestor Guts are helpful for understanding Korea's traditional funeral culture based on Confucianism and popular beliefs. The scene where ancestral gods are guided to Heaven through Buddhist prayers in the second part of the Jeonbuk Josang Gut is largely influenced by Buddhism. Ancestor Guts also contain Napeumohaeng to recite the Haewon of ancestral gods. The Jeonbuk Josang Gut offers a representative combination of Confucianism, popular beliefs, Buddhism, and other philosophical ideas and embodies the life and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The present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body of literature on shaman songs since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analyze the Saseols of Ibanmuga. This study of Jeonbuk shaman songs uses the collection of shaman song material accumulated during field studies and investigates shaman songs transmitted in Jeonbuk that saw an earlier decline than in other regions, thus holding significance.